

해 외 출 장 결 과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KAPEX) 사업”을 위한 현지 관계자 협의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농정성과 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국 협력부처 관계자와의 정책 협의를 통한 사업 설명 및 향후 추진 방식, 일정, 추진단 구성 등 논의
- 세부분야 선정을 위한 수요 파악을 통해 공동조사, 국내 초청연수, 정책 협의 워크숍 개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등의 방식 및 일정 논의
- 2013년 한-미얀마 농업경제포럼 참석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미얀마(양곤)	2013. 12. 8 ~ 12.11, 2박 4일)
지성태 부연구위원		

3. 주요 내용

- ‘14년 농식품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원에서 추진하게 된 농정성과 확산사업 대상국인 미얀마(농업관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세부 분야 선정을 위한 협의
- 세부분야 선정에 따른 공동조사 연구진 구축 방안 및 일정 협의
-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추진단 구성에 대한 협의와 초청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수립 및 방식과 일정에 대한 협의
- 정책협의회 개최를 위한 참여자 선정 기준 및 토의 분야에 대한 협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 미얀마 농업관계부와 주미얀마연방공화국 한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체하는 2013년 한-미얀마 농업경제포럼에 참석하여 KAPEX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의견 수렴

4. 일정표(방문기관 등) :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수행 업무
1	12.8 (일)	인 천 (18:30)	양곤 (22:30)	◦KE 471	◦출 국
2	12.9 (월)	체	재	◦한-미얀마 농업경제포럼 참석 -양곤 트레이더스호텔 ◦농업관계부 관계자 면담 -농업국장(Kyaw Win) -농업기획국부국장 (Aung Hlaing)	◦미얀마 농업분야 협력사업 현황 파악 및 정보 수집 ◦방문목적 및 일정 소개 ◦미얀마 농업관계부 협력사업 추진 절차 파악 ◦세부분야 선정을 위한 자료 공유 및 분석
3	12.10 (화)	체	재	◦KOICA 미얀마 사무소 관 계자 면담 -농업분야 ODA 전문가 (신종수 박사)	◦KOICA 농업분야 협력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KAPEX 사업 관련 정보 공유
4	12.10/ 12.11 (화/수)	양곤 (23:55)	인천 (07:45)	◦KE 472	◦귀국

II. 주요 출장결과

1. 한-미얀마 농업경제 포럼 참석

□ 일시/장소: 2013. 12. 9(월) 08:30-14:00/ 양곤 Traders 호텔

○ 주요 참석자

- 한국 : 이백순 주미얀마 한국대사,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손종록 미얀마 KOPIA센터 소장, 신종수 KOICA 미얀마 사무소 농업분야 ODA 전문가, 조용균 KD Power Advisor, 전강 국제종합기계주식회사 대리

- 미얀마 : Myint Hlaing 미얀마 농업관계부 장관, Kyaw Win 농업관계부 농업국장, Aung Hlaing 농업관계부 농업기획국 부국장, Ye Min Aung MAPCO 기업 과장

○ 주요 논의 내용

<미얀마 농업분야의 투자기회>

- Aung Hlaing 농업관계부 농업기획국 부국장 발표
- 미얀마 농업분야는 발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농업 투입재(종자, 비료, 농기계, 관개기술), 생산 및 가공(플랜테이션, 가공, R&D), 유통(도매시장), 조직 및 제도(농업협동조합, 농업금융, 식품안전 등)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해 투자 기회가 크다고 밝힘.
- 그러나 기술 낙후, 인력 부족, 공급 시스템 관리 및 산업 클러스터 부재, 협동정신 부족, 시장 인프라 취약, 수출시장에 대한 낮은 접근성, 자금 부족, 무역과 FDI 관련 정책 미비 등의 제약요인들이 존재함.
- 현재 정부 차원에서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동남아 지역에서 주요 농산물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함.

<한국의 농업정책과 한-미얀마 농업협력>

- 신종수 KOICA 미얀마 사무소 농업분야 ODA 전문가 발표
-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기초하여 시기별 한국의 농업발전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70년대 추진된 새마을운동의 성과 및 의미에 대해 강조함.
- 농업분야 발전 목표로 지역 소비자의 수요 충족, 잉여농산물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농업발전을 통한 농촌개발 지원 등을 제시함.
- 對 미얀마 농업협력 사업의 전략으로 농업개발과 농촌개발을 두 축으로 한 2 Track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농업개발을 위한 KOICA 사업으로는 수확 후 기술 훈련센터,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설 사업, 농촌개발 관련 사업으로는 새마을운동(SMU) 프로그램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SMU 훈련센터 건립, 마스터플랜에 근거한 7개 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거나 곧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미얀마 농업기계화 발전>

- 전장 국제종합기계주식회사 대리 발표
- 한국의 농업기계화 과정은 물론,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자사 주요 제품의 장점과 효율성에 대해 소개함.
- Alliance Stars의 지원으로 미얀마에 설립한 교육훈련 및 After Service 학교 운영현황 소개
- 향후 미얀마 전국에 80개의 서비스센터 설립 및 이를 통한 교육훈련과 종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지역화 전략을 밝힘.

<미얀마 농업발전>

- 농업관계부 농업국 부국장 발표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엘니뇨현상,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미얀마 농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힘.
- 2011/2012년 미얀마의 쌀 생산면적은 약 8백만ha, 단위 3,834kg/ha, 생산량은 29백만톤, 수출량은 707,000톤임.
- 대통령의 5대 개혁 가이드라인은 사공방식(mind-set)의 전환, 농지 정리, 품질 제고, 양질의 경작시스템 적용, 기계화 영농으로의 전환 등임.
- 농업관계부의 5년 단기 우선순위 발전 분야는 종자생산, 농업의 부가가산업, 농자재산업, 기계화영농으로의 전환, 환경보호와 자연재해 대비, 인적자원개발 등임.
- 그 중에서도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한 종자산업 발전을 구상하고 있었고, 농작물의 수확 후 손실률이 매우 높은 가운데 쌀의 경우 가치사슬(Value-Chains)을 형성하고, 쌀의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확단계에서의 콤바인, 건조를 위한 건조기, 저장시설, 도정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

<농업발전을 위한 제언>

- 조용균 KD Power Advisor 발표
-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Solar Pumping System을 소개하였으며,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힘.
- 시범사업 대상지는 Jokekone Village, Kwin Chan Village, Kan Oo Village 등임.

2. Kyaw Win 농업관계부 농업국장 면담

□ 일시/장소: 2013. 12. 9(월) 10:30-11:00/ 양곤 Traders 호텔

○ 주요 참석자 : Kyaw Win 농업관계부 농업국장, Thein Lwin 농업연구국장, 김홍상 박사, 지성태 박사, 농식품부 최병국과장, 박종민 사무관

○ 면담 내용

- KAPEX 사업에 대한 소개
- KAPEX 사업의 주제 선정 및 향후 추진을 위한 팀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Kyaw Win 국장은 본인을 포함한 농업기획국의 Aung Hlaing 부국장 혹은 국장, 농업연구국의 Thein Lwin 국장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함. 특히 KAPEX 세부 프로그램 가운데 공동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농업연구국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함.
- KAPEX 사업 주제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Kyaw Win 국장은 수확 후 관리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농업관계부 내에서의 조율에 대한 필요성을 내비침.
- 이에 농식품부 최병국과장은 주제 선정을 위해 양국 실무자들이 모여 소규모 워크숍을 개최할 것을 제안함. Kyaw Win 국장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3. Aung Hlaing 농업관계부 농업기획국 부국장 면담

□ 일시/장소: 2013. 12. 9(월) 13:00-14:00/ 양곤 Traders 호텔

○ 주요 참석자 : Aung Hlaing 농업관계부 농업기획국 부국장, 김홍상 박사, 지성태 박사, 농식품부 최병국과장, 박종민 사무관

○ 면담 내용

- KAPEX 사업에 대한 소개
- 우리 측에서 미리 송부한 ROD, TOR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제시한 20개 ‘한국형 ODA 프로그램’ 가운데 몇 가지 주제를 융합하는 것을 제안함. 그 중에서도 농업관계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임.
- Kyaw Win 국장의 의견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 측에서 보낸 사업 제안서를 보이며 제안서에 명기된 담당부서가 본인이 속한 농업기획국을 강조하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focal point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함.

- 이에 미얀마 농업관계부 부서간의 혼선을 막고 향후 KAPEX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 최병국과장은 구두로 농업기획국이 focal point임을 확인시켜 줌.
- Kyaw Win 국장이 제안한 농업국, 농업기획국, 농업연구국이 주축이 된 팀 구성에 대해서는 향후 정해질 주제의 성격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고 밝힘.
- 양국 실무자들 중심의 소규모 워크숍을 통해 주제와 향후 추진일정을 정하자는 의견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워크숍 개최시기로 2014년 1월 말 혹은 2월 초를 제시하였고, 장소는 네피도로 잠정 합의함.
- KAPEX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실무자와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만큼 농업기획국 내의 전담 인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함.

4. 신종수 KOICA 미얀마 사무소 농업분야 ODA 전문가 면담

□ 일시/장소: 2013. 12. 10(화) 11:00-14:00/KOICA 미얀마 사무소

○ 주요 참석자 : 신종수 KOICA 미얀마 사무소 농업분야 ODA 전문가, 김홍상 박사, 지성태 박사

○ 면담 내용

- 2013년도에 추진한 KAPEX 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미얀마 농업분야 발전 잠재력과 개발협력사업 발굴에 대한 자문 요청
- 미얀마의 토지제도는 국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경작권의 유동성이 매우 강하며, 마치 소유권 매매와 같이 자유로이 거래됨. 최근 농지법(2012)이 개정됨으로써 관련 제도 정비가 이루어짐. 물론 정부의 일방적인 토지 수용으로 인해 정부와 농민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함.
- 미얀마는 다양한 기후대를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자체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인프라가 취약하여 많은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수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관개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함. 농업금융도 중국 등의 국가에서 차관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상황임. 세수제도가 개선되면 이를 위한 재원을 어느 정도 자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인

해 세수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미얀마 정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외국 원조기관의 농업분야 지원섹터 가운데 정책 수립(policy making)과 R&D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두 분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뜻함.
- 미얀마는 다양한 기후대를 보유하고 인건비가 낮고 청정지역으로 종자 생산을 위한 최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종자산업 발전에 유리함. 우리나라 종묘회사가 이미 진출해 있음.
- 농약 전체 소비량의 약 8%만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 농약의 성능이 뛰어나 인기가 좋음.
- 미얀마 유일의 농업대학인 예진대학의 전공별 커리큘럼과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전문인력 육성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농공학과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미얀마의 전화 보급률이 5% 미만인 가운데 전화를 통한 농업 정보 제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TV의 농민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미얀마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농업 관련 사업 비중은 농업관개부 85%, 축산수산물농촌개발부 10%, 산림부 5%로 농업관개부가 주축임. 따라서 KOICA, 농식품부 등 한국 대부분의 농업 관련 기관들이 농업관개부를 counterpart로 삼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공사는 축산수산물농촌개발부와 별도의 MOU를 체결하여 자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ODA 분절화 조장은 물론 수원국 창구 단일화를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KOICA는 네피도 부근에 농업 관련 ODA를 집중함으로써 한국 농업 ODA의 메카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III. 향후 추진계획

- 미얀마 농업관개부 농업기획국 실무자급 Contact Point를 정하여 KAPEX 사업 주제 범주에 대한 사전 협의 및 ROD, TOR 내용 및 사업 추진 일정 사전 조율
- KAPEX 사업 주제 선정을 위한 소규모 워크숍을 개최할 경우 우리나라 농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미얀마 농업기획국과 관련 내용, 일정, 장소, 참석인원, 비용에 관한 협의. /끝/

<붙임>

<신종수 박사가 제안한 농업개발 협력 분야>

(미얀마 농업관계부가 제시한 분야와 일치)

- 1)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 인증된 종자 생산 및 보급 시스템
 - 종자 품질인증기술
- 2) 비료의 적절한 사용
 - GAP
 - 미얀마 국가 토성도(soil map) 작성
- 3)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농산업 발전
 -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 유인
 - 수확 후 관리 훈련센터
- 4) 영농 기계화로 전환
 - 농기계 교육훈련센터
- 5) 관개영농으로의 전환
 - 농지 정리 및 수자원 관리
- 6) 농업 R&D
 - 다수확 벼품종 개발
 - 수확 후 관리 기술연구센터
- 7) 대내외 투자 유치
 - 쌀, 대두, 참깨 관련 한국 식품업체 투자 유인
- 8) 농업통계 개선
 - 농업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Agro-IT)
- 9) 지속가능한 시장 조성
 - 도매시장 건설(유상+무상)
- 10) 농업법과 제도
 - 종자법과 제도
- 11) 정보와 미디어
 - 실시간 가격 정보(Agro-IT)와 농업 정보 채널(TV)